

여수시, '청년몰 벤치마킹 원정대' 참여자 모집

전국 청년몰 체험 후 정책 제안...9월 7일까지 방문신청

문화공간 조성·네트워크 구축 등 청년 추제 청년정책 제안

여수시가 오는 9월 7일까지 '2023년 청년몰 벤치마킹 원정대'에 참여할 청년 50여명을 모집한다.

'청년몰 벤치마킹 원정대'는 여수시 청년들이 전국 청년몰 방문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공간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 청년이 주체가 돼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전국 청년몰 체험 후 보고서를 제출하면 개인당 25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활동비는 교통비, 숙박비, 체험비, 입장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팀(3명~5명)으로 오는 9월 7일까지 시 청년일자리과(진남체육공원 내)로 방문·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9월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 팀을 선발하며, 선발된 팀은 오는 11월까지 활동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참여자들의 정책 제안 발표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 사례 2팀에게 팀당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청년일자리과(☎061-659-2153)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은 "벤치마킹 원정대



의 제안사항을 청년이 주체가 되는 상권 구성 등을 위해 여수시 꿈드림을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여수시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새롭고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 발굴·실행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보성군, 연말까지 영구 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보성군은 오는 연말까지 영구 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구 보존 지적기록물은 지적공부인 구 토지대장(부책, 카드),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들이다.

전산화 사업은 영구 보존 문서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미지 데이터베이스(DB)는 지적문서 통합 관리 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보성군은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적 측량 결과도 1만 5천 면, 토지이동결의서 14만 면 등 총 15만 5천 면을 전산화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적기록물 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100여 년 전부터 생산된 지적 문서의 훼손·마모 및 재난·재해로 인한 공적 정부의 유실을 방지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영구 기록 문서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으로 지적 행정의 지적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순천 송광사 일주문'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된다

선암사 일주문과 함께 순천시 전국 유일 2개 일주문 보물 보유

주불전(主佛殿)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일주문 중 50여 개소를 전수조사했고 2022년에는 순천 선암사 일주문 등 4건을 보물로 지정하고, 올해는 순천 송광사 일주문 등 6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송광사 일주문'은 정면 1칸에 맞배지붕 건축물로 정면에 '조계산대승선종송광사(曹溪山大乘禪宗松廣寺)'라는 현판이 세로로 쓰여 걸렸으며, 내부에는 '승보종찰조계총림(僧寶宗刹曹溪叢林)'이라는 현판이 가로로 길게 걸려있다.

건립연대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1802년(순조 2) 중창되었으며 1842년(헌종 8년) 큰 화재로 송광사 대부분 전각이 소실되었을 때 일주문은 화마를 피했다는 '조계산

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의 기록을 볼 때 늦어도 1802년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886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순천조계산송광사사적'에 포함된 송광사 배치도에서도 현재 송광사 일주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송광사 일주문은 조선 후기 사찰 일주문의 일반적인 가구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사찰을 경계로 공간 구분을 하는 일주문 건축의 보편적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어 역사·학술적 가치를 높게 인정 받았다.

문화재청은 송광사 일주문 등 이번예 예고한 사찰 일주문 6건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시민과 소통 바탕 시정 개선 노력

광양시는 28일 정인화 시장 주재로 8월 중 '광양 감동데이'를 열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시민의 시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광양 감동데이'는 시민이 시정발전 방안, 고충 및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이다.

이번 감동데이는 4팀 10명의 시민이 방문해 ▲광양읍 경로당 시설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용강리 입구 사거리 확장 건의 ▲유기건 임시보호소 개선 건의 ▲생활체육시설 확장 건의 등 총 7건의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읍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과 용강리 입구 사거리 확장 건의에 대해서는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며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경제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우선순위를 결정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고흥군, 제3회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서핑대회 개최

호남 유일 전국 서핑대회 개최, 서핑의 성지로 발전 기대

고흥군은 오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고흥 남열해돋이해수욕장에서 제3회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서핑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호남 유일의 서핑대회로서 관광 및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체육으로서의 서

핑종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대회인 만큼 전국 각지에서 300여명의 선수 및 동호인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맘껏 뽐내며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서퍼 페스티벌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강습과 비기너 이벤트

가 준비되어 많은 서핑 초심자와 관광객들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고흥서핑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개최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겠다."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바닷가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회가 열리는 '남열해돋이해수욕장'은 2014년부터 매년 서핑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

핑의 명소로서, 서핑이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2019년에는 국내 최초 국가대표 선발전이 이곳에서 치러졌다.

한편, 고흥군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대응계획에 따라 방류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방사능 안전 정보를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거리의 전광판을 통해 공개하는 등 참가 선수들이 안심하고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지급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